



RE100 캠페인 대표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 및 협력방안 논의

- 우리 기업의 RE100 활용 지원 및 무탄소에너지(CFE) 협력 공감대 형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아시아 재생에너지 성장 포럼」 행사 주최로 방한한 RE100 캠페인(The Climate Group) 대표 헬렌 클락슨(Helen Clarkson)과 5.20.(월) 면담을 갖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RE100 캠페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안덕근 장관은 전 세계적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더 클라이밋 그룹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 정부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노력을 설명하였다. 한국 정부는 무탄소에너지(CFE)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기조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5.16.(목)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은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 중심국가로서 재생에너지 활용 여건도 주요국 대비 매우 불리하지만, 현재까지 36개 기업이 RE100 가입을 선언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용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공식 인정되는 RE100 이행 수단을 신속히 마련하였고, 향후에도 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이 편리하도록 지속 개선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클락슨 대표는 한국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안덕근 장관은 더 클라이밋 그룹측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RE100 기술기준」 개정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주요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당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헬렌 클락슨 대표는 우리 측 요청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안덕근 장관은 기후위기·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무탄소 에너지 전환 노력과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양측은 향후 CFE와 RE100 캠페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남명우 (044-203-5360)
		담당자	사무관	조현진 (044-203-5363)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